

# EL MONO GRAMATICO에 나타난 Octavio Paz의 메타픽션 비평

이 상 원  
배재대, 중남미문학

## I. 머리말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남미 문학에 있어서 1940년대는 전통적 형태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소설 기법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분기점을 이루게 된다.<sup>1)</sup> 이러한 새로운 소설형태의 등장은 이후 50, 60,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중남미 현대소설의 흐름을 규정 지을 수 있는 “Boom”소설 경향의 모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Boom”소설은 소설구조의 복잡한 체계 혹은 『짧은 인생』(La vida breve)의 Santa María가족이나 『백년간의 고독』의 Los Buendía 같은 대가족 형태 그리고 중남미 자신의 정체성(identidad) 개념이나 “Comala”, “Macondo” 등의 신화적 장소와 같은 상상적인 공간 배경의 창조를 통하여 민족적이고 중남미적인 사회, 문화적 형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붐”소설의 절정기를 대변하는 60년대는 심오한 작품구조를 통한 복잡성, 난이성, 다양성의 미학체계와 더불어 나타나며 또한 문화혁명의 주제를 통하여 표출되어 진다고 할 수

1) 에미르 로드리게스 모네갈(Emir Rodríguez Monegal)은 중남미 소설의 발전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Boom”소설 경향인 1940,50 그리고 60년대, Emir Rodríguez Monegal. *El boom de la novela latinoamericana*. (Caracas. Editorial Tiempo Nuevo.1972. p.72) *Narradores de esta América* (Buenos Aires. Editorial Alfa Argentina. 1976. pp21-23) 참조. 1940년대 새로운 소설형태(nueva novela)의 등장으로 인한 “Boom”소설의 출현이라는 그의 설명은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Donald L. Shaw의 의견과도 합치된다:“전통적이고 오래된 자연주의 그리고 기록적인 문학으로부터 모호하고 비평적인 다양화된 새로운 소설의 등장...”Carlos Fuentes.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México. Joaquín Mortiz. 1981. p. 17). Donald L. Shaw. *Nueva narrativa hispanoamericana*(Madrid. Edición de Catedra. 1981. p. 17).

있다. 따라서 중남미 현대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Boom”소설 비평의 대부분 역시 모든 종류의 사회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한 중남미적 문화 혁명기의 테마비평과 미학체계의 구조분석에 일반적인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Boom”소설 비평의 일반적 흐름 내에서도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민족적, 중남미적 문화의 사회문제 테마들을 극복하고 글쓰기나 언어의 문제 혹은 “읽기행위”(lectura) 그 자체를 중심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물론 문화적, 사회적 문제 등을 등한시했다기보다는 글쓰기와 읽기 행위 같은 소설의 자의식 세계가 소설의 문화적 의의성 형성에 포함되는 주요 관심사의 일부분으로서 표명되게 되는 것이다. Rodríguez Monegal 역시 Cortázar의 “Rayuela”를 언급하며 이러한 창작행위의 자의식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2)</sup> 읽기 행위이던 혹은 글쓰기 행위이던간에 창작 행위에 있어서 언어의 자의식적 관점의 문제는 이후 북미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에서 언급되는 메타픽션 이론의 주요 공통 관심사이다.<sup>3)</sup> 80년대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그 정의와 특성에서부터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으나 많은 논쟁거리의 일부분으로서 이미 메타픽션의 영역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소개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 있어서는 단지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서 메타픽션 이론의 설명이나 소개가 아닌 실제로 중

2) “Después de Rayuela, las estructuras externas o internas de la novela en nuestra lengua ya no serán mismas. El libro de Cortázar no sólo cuestiona la forma de contar una historia, volviendo al lector consciente no sólo del orden de la lectura (Véase el ‘Tablero de dirección’) sino también del acto de leer mismo. Al discutir en muchos de los ‘Capítulos prescindibles’ la operación de escritura que la novela implica, Cortázar convierte al lector en ‘Cómplice’, y lo obliga a sobrellevar con él el peso de la creación de la obra. Cada lectura diferente del libro es una nueva escritura.” Emir Rodríguez Monegal. *El Boom de la novela latinoamericana*. Op., Cit., p.82.

3) 메타픽션의 많은 이론서들중에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Patricia Waugh의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New Nork; Methun & Co, Lit.,1984)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의식소설 범주에 속하는 중남미 작가들과 작품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Jorge Luis Borges; *Tlon, Uqbar, Orbis Tertius*, *La biblioteca de Babel*, *La muerte y la brújula*, *El otro*, *Las ruinas circulares*, *Borges y yo*, *El jardín de senderos que se bifuran* y *Nueva antología personal*. Julio Cortázar; *Rayuela* y *62 modelos para armar*, Gabriel García Márquez; *Cien años de soledad*, Guillermo Cabrera Infante; *Tres tristes tigres*.

남미 문학의 한 부분으로서 창작행위의 자의식 개념과 글쓰기 문제가 어떻게 문학작품을 통해 반영되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메타픽션 비평의 많은 부분은 구미 비평가에 의해서 대부분 소개되어 왔고 그에 따르는 문학작품의 적용과 이해에 상당부분 중남미 작가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의 문학경향이나 운동의 흐름을 체계화 또는 범주화하는 이론화 과정은 중남미 문학의 비평사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 있어서는 중남미 작품에 대한 구미 비평가들의 단순한 메타픽션 이론의 적용이 아닌, 작가들의 글쓰기 행위에 관한 생각이 표명화된 단순한 문학 작품분석을 벗어나 Paz의 *El Mono Gramático*를 통해 역으로 작품 그 자체의 세계가 메타픽션 그리고 자의식적 글쓰기 행위를 표명한 마치 이론서의 지침과도 같다는 것을 규명화 또는 체계화<sup>4)</sup>시켜 보고자 한다.

## II. 글쓰기 행위의 자의식 개념과 El Mono Gramático de O. Paz.

메타픽션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의 일 이라고 해도 문학사에 있어서 자

- 
- 4) Octavio Paz는 그의 저서 *Corriente alterna*에서 이같은 점을 직시하고 있다: “Es un secreto o voces que la crítica es el punto flaco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 carecemos de un < cuerpo doctrina > o < doctrinas >, es decir, de ese mundo de ideas que, al desplegarse, crea un espacio intelectual.” O.Paz. *Corriente Alterna*. (México, Siglo XXI, 1984). p.39.
- 5) 실질적으로 Rafael Phillip은 그의 논고 “Octavio Paz: La gimnasia poético-crítica” en *Octavio Paz*(Edición de Alfredo Rogiano. Madrid. Espiral/Fundamentos. 1979. p.340)를 통해 *Los hijos del limo*와 *El Mono Gramático*의 문학 이론서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Juan Goytisolo역시 O.Paz의 저서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 성격의 요소(시적, 서술적, 비평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En *El Mono Gramático*, Octavio Paz ha logrado perfectamente, bajo la apariencia ‘normal’ del ensayo, el texto total(crítico, narrativo, poético) que admite y exige pluralidad de lecturas”. (*Disidencias*. Barcelona. Seix Barral. 1977. p.176). Paz 스스로도 그의 저서 *Corriente alterna*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로서 문학작품의 이론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Crítica y creación viven en perpetua simbiosis”. (p.40) y “la creación es crítica y la crítica, creación” (p.44).O. Paz. *Corriente Alterna*. (México, Siglo XXI, 1984). p.39.

의적 글쓰기의 형태는 내부적으로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서술적 글쓰기 행위의 자의식 개념은 단지 문학에 있어 내적 심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형식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그 자신 자체의 모습으로 되 돌아 갈 때, 즉 다시 말해서 그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의 전형적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학작품은 동시에 글쓰기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글쓰기 행위에 관해 말하게 되는 비평이나 이론과도 같은 또다른 형태의 자의식적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sup>6)</sup>

O. Paz의 *El Mono Gramático*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작품에 있어 장르구분의 모호성 문제를 제기한다.<sup>7)</sup> 이러한 장르구분의 애매함은 단지 *El Mono Gramático*에 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적 창작행위에 있어서 항상 부각되는 주요 관심사의 문제이다. 이러한 그의 작품 형태는 끈임없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시나 수필의 세계가 개별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밀접하고도 영속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총체적 의미 아래에서만 규정되어 질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와 수필 혹은 산문의 세계는 모든 것이 조화된 균형의 세계이며 또한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문학표현의 경계점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의 '혼재'(symbiosis)의 상태를 형성한다.<sup>8)</sup> 만일 문학의 비평이 수필적인 형태를 빌린다면

- 
- 6) Alvaro Pinda-Botero. *Del mito a la postmodernidad* (Bogotá: Tecero Mudo Editores, 1990) p.142.
- 7) "*El Mono Gramático* es inclasificable. Parece a veces un libro de viajes, de recuerdos de la India; otras, un comentario sobre el lenguaje, sus límites y sus posibilidades". Manuel Durán. "El impacto del Oriente en la obra de Octavio Paz: poesía y ensayo" en *Octavio Paz*. (Edición de Alfredo Roggiano. Madrid. Editorial Fundamentos. 1979.p.98.
- 8) Jaime Alazraki는 Paz의 몇몇 작품에 관한 이러한 '혼재'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nsayo? ¿Poema? ¿Poema?-¿Ensayo?" ¿Ensayo?-¿Poema? o tal vez una simbiosis que trasciende la noción de género". "Tres formas del ensayo contemporáneo: Borges, Paz, Cortázar" en *Revista de la Universidad de México*. (Sep. 1982. Vol XXXVIII, No.17) p.20. Alazraki가 Paz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혼재' 개념을 설명하는 반면에 Luis Alonso Díaz는 '혼재'개념을 Paz의 정체성 문제로서 설명하고 있다: "Desde sus inicios como poeta que es a la vez poeta y crítico (pensador y ensayista), o crítico que es también poeta. Octavio Paz ha tejido una grandiosa obra -en volumen como intensidad- precisamente sobre el principio o lema de la 'delicada balanza verbal'. Balanza verbal que trasluce el estrecho o inquebrantable compromiso por él adquirido con respeto a su forma poética y al pensamiento mortiz de esa poética". "Poética y pensamiento poético" en

이러한 '혼재'의 양태는 시와 비평 사이에도 성립되어 질 수 있다. Paz 스스로 역시 이러한 시와 비평 그리고 창작행위에 혼재개념을 표현하고 있다.<sup>9)</sup>

겉으로 드러나는 *El Mono Gramático*의 세계는 인도의 Galta지방 순례를 향한 여행길의 기억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억과 추억에 의한 여행길을 더듬어 올라가는 동안 풍경, 동물, 고성, 경내의 모습 그리고 문화의 유적들과 같은 아름다운 전경들은 사라지고 이러한 여행길의 묘사가 그 스스로의 기술행위에 관해 언급하게 되는 언어에 관한 라마(Rama)의 옛 고서와 개념들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Paz는 실제 현실 모습의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언어 그 자체를 기술하는 언어의 기능에 관한 자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Galta의 여정길을 묘사하는 산문 형태의 시가 될 수 있으며 또다른 모습으로는 창작행위의 개념을 나타내는 비평서의 역할을 한다.<sup>10)</sup> Paz의 세계에 나타나는 언어의 자의식 개념은 글쓰기 행위 자체나 아니면 글쓰기의 창작 행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즉 다시 말해서 Galta의 여정기가 창작행위의 글쓰기 형태를 대변하는 반면에 글쓰기 행위 자체에 관한 묘사는 비평을 포함하는 메타픽션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El Mono Gramático*는 글쓰기 행위와 언어의 자의식 개념을 나타내는 비평과 이론서의 '혼재형태'(symbiosis)로 메타픽션의 세계를 엿보게 한다.

---

*Aproximaciones a Octavio Paz.* (México: Joaquín Mortiz. 1974) p.96.

- 9) "La crítica es lo que constituye eso que llamamos una literatura y que es tanto la suma de las obras como el sistema de sus relaciones: un campo de afinidades y oposiciones. Crítica y creación viven en perpetua symbiosis. La primera se alimenta de poemas y novelas pero a su vez es el agua, el pan y el aire de la creación". Octavio Paz. *Corriente alterna*. Op., Cit., p.40.
- 10) *El Mono Gramático*에 대한 시와 비평서에 관한 평가는 Rachel Phillips의 생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l Mono Gramático* se plantea con su mismo título en lo más sagrado de la religión hindú, en cuyos mitos los avatares de los dioses se incorporan otra vez en la vida. Este libro se desarrolla como un contrapunto entre la prosa y las artes visuales, arquitectura, pintura y fotografía; aquél explora el poder de la palabra, y la enorme soledad moderna de nuestro hemisferio. El uno resulta ser algo como un largo poema concreto; el otro una crítica embelesadora". Rachel Phillip. 'Octavio Paz: la gimnasia poético-crítica' en *Octavio Paz* (Edición de Alfredo Roggiano. Madrid. Espiral/Fundamentos. 1979). p.339.

## II - I. 메타픽션과 La visión de la visión.

*El Mono Gramático*에서 Paz는 실체론적 문법(la gramática ontológica)은 대상물과 그 대상물을 지칭하는 말 사이에 불 일치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낙원의 세계에서 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체론적 문법에 있어서는 말은 표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그대로 묘사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이미 낙원이 아니기에 '대상물'과 '말' 사이에 처한 우리의 상황은 낙원의 것과는 다르며 '대상물'과 '말' 사이의 불일치성이 존재하게 된다.

“Todos merecen (merecemos) un nombre propio y nadie lo tiene. Nadie lo tendrá y nadie lo ha tenido. Esta es nuestra verdadera condenación, la nuestra y la del mundo. Y en esto consiste lo que llaman los cristianos el estado de naturaleza caída. El paraíso está regido por una gramática ontológica: las cosas y los seres son sus nombres y cada hombre es propio”. Octavio Paz. 'El Mono Gramático' en *Poemas(1935-1975)* (Barcelona. Seix Barral. 1984). p.560.

자의식적 작가들의 첫번째 조건은 이러한 낙원의 세계를 벗어난 우리들의 현실 모습을 직시하고 대상물들이 그들 자신 고유의 이름을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즉 자의식적 관점의 작가들은 사물의 이름을 명명(nombrar)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물들과 불려지는 이름이 그들 실체의 것이 아닌 사물들을 밝혀 내는 이 들인 것이다.<sup>11)</sup> 적어도 시적 창작 행위는 사물의 이름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그 대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급되어지는 장소(현실세계)는 아무것도 존재 하지 않는(ausencia o nada) 무 인식의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불려지게 되는 대상물은 '말'에 의해서 언급되어 질 수 없고 '말'들은 언급되는 사물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느낌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나무'라는 표현은 나무의 이름이 아니며 나무에 대한 느낌 역시 아니다. 나무라는 '말'은 나무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나무의 개념에 관한 느낌의 표현인 것이다.<sup>12)</sup> 이러한 현실 모습 앞에

11) “(el escritor autoconsciente)... no es el que nombra las cosas, sino el que descubre que las cosas no tienen nombre y que los nombres con que las llamamos no son suyos”.p.532.

서 작가들은 사물을 명명한다는 환상에 빠져들기 쉬우며 역설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 개념의 느낌만을 즐기게 된다. 시인들이 그려내는 것은 현실 세계의 묘사가 아니라 단지 언어 그 자체의 묘사인 것이다.<sup>13)</sup> Paz는 이러한 언어의 자의식 개념 혹은 허구적 글쓰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The Fairy-Feller’s Master Stroke*”로 제목이 붙여진 Richar Dadd의 그림을 소개한다. 이 그림에서 모든 구경꾼들은 개암나무 앞으로 덮혀진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El cuadro es un espectáculo: la representación del mundo sobrenatural en el teatro del mundo natural. Un espectáculo que contiene otro, paralizador y angustioso, cuyo tema es la **expectación**: los personajes que pueden el cuadro esperan un acontecimiento inminente. **El centro de la composición es un espacio vacío**, punto de intersección de todas las fuerzas y miradas....; en el centro de ese centro hay una avellana sobre la que ha de caer el hacha de piedra del leñador.” p. 565.

이러한 텅 빈 공간은 모든 관중들의 시선이 모이는 교차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에는 관중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사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언급되어 지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의 개념을 의미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며 Dadd의 그림은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는 행위’(acto de mirar) 그 자체를 표현한다. 다시 말한다면 Paz가 “Dadd는 그림의 자의식적 관점 그 자체를 그렸다고” 말하듯이<sup>14)</sup>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관중들의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시선 그 자체의 ‘관점’(visión)에서 그림 ‘그

12) “el árbol no es el nombre de árbol, tampoco es una sensación de árbol: es la sensación de una percepción de árbol que se disipa en el momento mismo de la percepción de la sensación de árbol”, p.532.

13) 글쓰기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언어의 자의식 개념은 Lelia Madrid의 *El Mono Gramático* 분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 “El objeto no puede referirse por la palabra: las palabras no lo dicen ni dicen lo que se quiere decir (...) Describir un camino -en este caso, el de Galta- es entonces una imposibilidad: lo que termina por describirse es el lenguaje a sí mismo. El texto no va al encuentro de nada que le sea ajeno porque el lenguaje es otra cosa que no es la realidad”. En ‘El estilo del deseo: El Mono Gramático’ en *El estilo del deseo: La poética de Darío, Vallejo, Borges y Paz* (Madrid. Editorial Pliegos. 1988) p.118.

14) “Dadd ha pintado la visión de la visión”. p.566.

자체의 표현'(visión de la visión)을 의미하는 자의식적 관점으로 변환되게 된다.

이러한 자의식적 관점의 표현은 문학에 있어 메타픽션의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언급되어 지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구의 세계와 작품 그 자체의 세계를 묘사하는 글쓰기 행위의 언급. 문학의 자의식적 작품은 언어로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허'(ausencia)개념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며 결국 묘사되어진 현실의 모습은 언어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대신에 글쓰기 행위 그 자체의 모습을 배회하는 자의식적 관점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Paz는 Dadd의 그림을 이용하여 *El Mono Gramático*의 자의식 세계에 있어서 동일시되는 모든 이러한 현상의 상호 모순점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 II - II. 순간 정점의 가변적 상호 모순세계(El mundo contradictorio de la fijeza momentánea)

Paz는 글쓰기 행위의 자의식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동의 정점'(fijeza)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은 지상낙원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실 세계의 '말'과 '대상물' 사이에는 불일치성이 존재한다. Paz는 기억과 상상에 의해 *El Mono Gramático*의 세계를 만들어 내며 Galta를 향한 길은 점차적으로 글쓰기 행위의 현실 모습으로 변환되어 간다. 이러한 Galta를 향한 길에서 그는 여행길의 '끝'(fin)을 언급한다. 비록 길 가는 이는 —시인의 '유사'(analogía) 개념— 여행길의 끝을 알지 못하며 알기 위한 걱정도 하지 않는다.<sup>15)</sup> 여행자에게 끝의 의미는 단어의 함정과도 같이 흐리게 지워져서 나타난다. 끝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만일 어떠한 것이 있다면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식으로 끝은 스스로 자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6)</sup> 여행자와 같이 시인도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끝은 현상이 나타났다가 즉시 사라져 버리는 상호 모순 현상을 보여준다. 즉, 여행길의 끝은 '나타남'(aparición)과 '사라짐'(desaprición)현상의 대화적 유희로 나타나고 '끝'을 찾

15) "lo mejor será escoger el camino de Galta, recorrerlo de nuevo (inventado a medida que lo recorro) y sin darme cuenta, casi insensiblemente, ir hasta el fin"(p.507). "cuando caminaba por el sendero de Galta, (...), tampoco sabía adónde iba, ni me preocupaba saberlo". (p.509).

16) "Pero, el fin es la reputación y la condenación del camino; al fin el camino se disuelve, el encuentro se disipa. Y el fin también se disipa". p.509.



고자 하는 글쓰기 행위의 현실 세계 또한 상호 모순 공간내에서 '나타남'과 '사라짐'이 함께 하는 장소로 변환이 된다. Paz는 Galta를 향한 길과 창작행위(글쓰기 행위)를 향한 길의 유사개념을 통하여, "el camino es escritura"(p. 573), 글쓰기 행위를 '나타남'과 '사라짐' 현상의 축제로 표현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나타남'과 '사라짐'은 길을 걸거나 글쓰는 행위의 공통적인 형상이며 '순간적 정점'(fijeza momentánea)이라는 일시적으로 동의되어진 언어의 가변적 유희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포함한다. Paz는 '정점'이라는 말의 고정된 의미를 다시 부정한다.

"La fijeza es siempre momentánea. Es un equilibrio, a un tiempo precario y perfecto, que dura lo que dura un instante: basta una vibración de la luz, la aparición de una nube o una mínima alteración de la temperatura para que el pacto de la quietud se rompa ..(...). Cada metamorfosis, a su vez, es otro momento de fijeza al que sucede una nueva alteración y otro insólito equilibrio. Si nadie está sólo y cada cambio aquí provoca otro cambio allá. Nadie está sólo y nada es sólido: el cambio se resuelve en fijezas que son acuerdos momentáneos. ¿Debo decir que la forma del cambio es una incesante búsqueda de fijeza?". pp. 512-513.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점'의 개념은 가변성과 고정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요소를 포함하는 '모호성'(ambigüedad) 개념의 의미론으로 전환되며 순간적 정점이라는 상호 모순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남'과 '사라짐'의 축제를 즐기는 언어의 대화적 '유희'(juego)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한다면 글쓰기 행위로 인한 현실세계의 모습은 언급되어지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텅빈 공간의 부재 개념에서 나오는 '나타남' 현상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현의 세계는 부가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한곳에 집합시키는 상호 모순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상호 모순적 세계는 수수께끼의 형태와도 같은 여러 다른 의미의 '단일'(unidad)과 '분산'(dispersión)이 드러나는 언어의 현실 모습을 말한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글쓰기 행위로 인한 현실세계의 출현과 더불어 자의식 개념으로 인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사라짐'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출현'의 현상과 '가변적인 순간적 정점 세계'(la fijeza momentánea)에 의한 글쓰기 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현실세계인 Galta 여행

17) "...bien esto que escribo es una ceremonia, girar de una palabra que aparece y desaparece en sus giros. Edificio torres de aire". p.514.

길은 자의식적 글쓰기의 관점인 창작행위 그 자체의 길로 전환되게 된다.

Paz는 이러한 자의식 관점의 상호 모순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의 제목을 따온 Hanuman 이라는 신성하고 위대한 원숭이를 소개한다. Lanca에 무너진 성벽에 그려진 Hanuman은 실존적 의미와 현상학적 의미의 경계를 재인식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같은 것’(lo uno)과 ‘서로 다른 것’(lo otro)들을 일치시킨다. 그는 마치 ‘신’들이나 우주의 세계를 비평하는 시인이나 문법의 아홉번째 저자로 소개되며 그의 역할은 서로 다른 불일치성의 벽을 허물고 오고 갈 수 있는 ‘통로’(tránsito)의 ‘교량’ 역할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Hanuman의 모습은 순수성과 확실성 공간의 은유적 표현인 ‘산’과 순수하지 못하며 불특정의 세계를 나타내는 ‘바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양극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량’의 비유로 나타난다.<sup>18)</sup> 하지만 서로 다른 양극을 연결시켜 주는 Hanuman의 출현은 매우 순간적인 것이며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찰라는 부동성과 유동성의 일치라는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정점의 상태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러한 찰라의 순간에서 그는 다른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며 모든 것의 일부를 포함하는 정체성의 의미를 지닌다. Hanuman 스스로 모든 경계선과 차별점, 분리의 성격을 지워 버리기 위하여 글쓰기 행위와 ‘길’을 동일시하는 유사의 세계로부터 우주의 모습을 바라본다.<sup>19)</sup>

그리고 이러한 가변적인 정점의 순간적 찰라는 Dadd의 자의식적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순간적 출현(도끼로 내려침)을 기다리며 모든 시선이 교차되는 공간에서 일어날듯 안 일어나는 영속적인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시간의 개념을 지워 버린 듯한 끈임없는 긴장감의 조성은 ‘절대로’(nunca)와 ‘항상’(siempre)이라는 시간 개념의 상호 모순점을 일치시키는 영속적인 긴장감 상태로 연결되어지는 순간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18) *El Mono Gramático*. p. 524 참고.

19) “Hanuman sonríe con placer ante la analogía que se le acaba de ocurrir: caligrafía y vegetación, arboleda y escritura, lectura y camino. Caminar: leer un trozo de terreno, descifrar un pedazo de mundo. La lectura considerada como un camino hacia ...”. p. 530.

### III. 맺음말

우리는 *El Mono Gramático*를 통하여 Paz가 표명하는 언어의 자의식적 글쓰기 행위와 창작행위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을 포함하는 메타픽션 세계에 관해 알아보았다. 글쓰기 행위의 자의식적 관점은 그의 작품세계가 단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인도의 Galta지방 순례를 향한 여행길의 기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analogía), ‘혼재’(simbiosis) 개념을 통하여 실제 현실 모습의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자의식적 글쓰기 행위와 언어 기술 행위 그 자체의 언급, 그리고 허구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세계는 시와 비평 그리고 창작행위에 혼재개념을 표현하는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성향의 중요 특징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장르 구분의 모호성 개념에서부터 엿보여질 수 있다. 즉, Paz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Galta의 여정길을 묘사하는 산문 형태의 시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모습으로는 창작 행위의 개념을 나타내는 자의식 관점의 비평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먼저 Paz는 현실 세계의 ‘말’과 ‘대상물’ 사이에는 불 일치성이 존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픽션의 두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작가에 의해 불려지게 되는 현실 세계의 대상물은 ‘말’에 의해서 언급되어 질 수 없고 ‘말’들은 언급되는 사물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느낌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글쓰는 이들은 작품 세계에 언급되어지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구의 세계를 인식하고 언어로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허’(ausencia) 개념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묘사되어진 현실의 모습은 언어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대신에 글쓰기 행위 그 자체의 모습을 배회하는 자의식적 관점만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자의식적 글쓰기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Paz는 ‘부동의 정점’(fijeza)이라는 특유의 용어를 사용하며 ‘시인’이나 ‘글쓰는 이’, 그리고 가변적이며 ‘순간적 정점의 영속적 긴장감’(la tensión infinita de la fijeza momentánea)세계를 만들어 가는 실체를 형상화 한 인도의 신화적 존재인 Hanuman을 이끌어 낸다. ‘부동의 정점’ 개념은 함축적으로 가변성과 고정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요소를 포함하는 ‘모호성’(ambigüedad) 의미를 포함하며 그것에 따르는 ‘순간적 정점’이라는 상호 모순 세계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축제를 즐기는 언어의 대화적 ‘유희’(juego)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Hanuman은 작품의 현실 세계와 ‘집합성’(convergencia) 그리고 ‘단일

성'(unidad)의 상징으로 변환되는 유사개념의 실체인 '글쓰기'(escritura) 행위의 자의식 관점을 통하여 '순간적 정점의 영원한 긴장'을 만들어 내고 조율한다. 그리고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접목시키는, 떠돌아다니는 순환개념의 집회와 같은 시적 관점을 대변하게 된다.<sup>20)</sup> 즉 Hanuman은 분리와 이질적, 상호 모순적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순간적 '통로'(tránsito)라는 은유의 세계이며 '모든 관점의 집합성'(la convergencia de todos los puntos)이라는 시적 세계의 상징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El Mono Gramático*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추억과 회상에 의한 산문 형태의 감상적 시 세계를 벗어나 유사 세계를 통하여 창작행위에 있어 나타나는 현실세계의 모습 그리고 언어의 정체성 문제를 포함한 글쓰기 행위 그 스스로에 관한 묘사와 자의식적 관점을 표명하는 메타픽션의 모습을 보여준다. 글쓰는 이 스스로가 문학세계 자체를 조명하고 문제점을 되물어 보는 자의식적 관점은 이미 존재해 왔으며 그것에 따르는 작품분석 역시 근래에 들어 많은 비평가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여러 중남미 작가들의 작품이 일부 메타픽션적 성격을 지니는 모습을 취한다고 해도 작품세계 그 자체가 마치 체계화된 이론의 규범서, 설명서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마치 Narciso의 자화상 모습처럼 Paz의 작품세계는 언어의 자의식적 글쓰기 행위를 나타내는 비평과 이론서의 혼재 형태로(simbiosis) 메타픽션의 세계를 엿보게 한다.

20) "La visión de la poesía es la de la convergencia de todos los puntos. Fin del camino. Es la visión de Hanuman al saltar(géiser) del valle al pico del monte o al precipitarse(aerolito) desde el astro hasta el fondo del mar; la visión vertiginosa y transversal que revela el universo no como una sucesión, un movimiento, sino como una asamblea de espacios y tiempos, una quietud. La convergencia es quietud porque en su ápice los distintos movimientos, al fundirse, se anulan; al mismo tiempo, desde esa cima de inmovilidad, percibimos al universo como una asamblea de mundos en rotación". pp. 579-580.

## 참고문헌

- BARTH, John, “Literatura del agotamiento” en *Jorge Luis Borges*. (Edición de Alazrki) Madrid. Taurus. 1987.
- BARTHES, Roland, *Lo obvio y lo obtuso*. Buenos Aires. Paídos. 1986.
- BARTHES, Roland, “La muerte del autor” en *El susurro del lenguaje*. Barcelona. Paídos. 1987.
- CORTAZAR, Julio, *Rayuela*. Barcelona. Adhasa. 1984.
- DELLA ROCCA, Cristiana de Peretti. *Jacques Derrida: Texto y Deconstrucción*. Barcelona. Editorial Antropos. 1989.
- DURAN, Manuel, “El impacto del oriente en la obra de Octavio Paz: Poesía y ensayo” en *Octavio Paz*. (Edición de Alfredo Roggiano) Madrid. Editorial Fundamentos. 1979.
- FUENTES, Carlos,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México. Editorial Joaquín Mortiz. 1980.
- FUENTES, Carlos, *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México. Joaquín Mortiz. 1980.
- FLORES, Angel, *Aproximaciones a Octavio Paz*. México. Joaquín Mortiz. 1974.
- GOYTIISOLO, Juan, “El lenguaje del cuerpo (sobre Octavio Paz y Severo Sarduy)” en *Disidencias*. Barcelona. Seix Barral. 1971.
- MARTINEZ TORRON, Diego, “Escritura, cuerpo del silencio” en *Octavio Paz*. (Edición de Pere Gimferrer) Madrid. Taurus. 1982.
- MORA, Jorge Aguilar, *La divina pareja: historia y mito en Octavio Paz*. México. Era. 1976.
- PAZ, Octavio, *Corriente alterna*, México. Siglo XXI. 1984.
- PAZ, Octavio, “El Mono Gramático” en *Poemas(1935-1975)*. Barcelona. Seix Barral. 1984.
- PHILLIP, Rachel, *Octavio Paz: la gimnasia poético-crítica en Octavio Paz*. Madrid. Espiral-Fundamentos. 1979.
- PHILLIP, Rachel, *Las estaciones poéticas de Octavio Paz*. F. C. Económica. 1976.

- PEREIRA, Armando, *Deseo y escritura*. México. Premia Editora. 1985.
- PEREIRA, Armando, *Graffiti: notas sobre crítica y literatura*. México. Premia Editora. 1985.
- PINEDA-BOTERO, Alvaro, *Del mito a la postmodernidad*. Bogotá. Tercero Mundo Editores. 1990.
- PRAZ, Mario, *Mnemosina: paralelo entre la escritura y las artes visuales*. Caracas. Monte Avila Editores. 1986.
- RIOS, Julian, "Un coup de Dadd" en *Octavio Paz*. Madrid. Espiral Fundamentos. 1979.

## LA CRITICA METAFICCIONAL DE O. PAZ EN *EL MONO GRAMATICO*

En general, la culminación de la narrativa del Boom se manifiesta a través del tema de la revolución cultural reordenado por una profunda elaboración estructural. Por ende, la mayor parte de la crítica a la narrativa del Boom se ha enfocado al análisis temático de la revolución cultural en que surgen toda clase de cuestionamientos sociales (del hombre) en el mundo y al análisis estructural de la elaboración estética. Sin embargo, dentro de la historia literaria del Boom existen casos de cuestionamiento de sus parámetros. En algunos casos es notorio el deseo de superar el tema del cuestionamiento social de la cultura nacional y latinoamericana para centrarse en el tema de la escritura y de la lectura. No se trata de desatender la preocupación cultural y social, sino que el autocuestionamiento de la escritura y de la lectura entra a formar parte de la significación cultural de la novela. El autocuestionamiento de la creación de la escritura, sea por el acto de leer o por el acto de escribir, es el tema principal en la teoría de la metaficción, la cual surgió posteriormente en el campo teórico de la Postmodernidad norteamericana.

*El Mono Gramático* de Octavio Paz es una obra que presenta dificultad para precisar su identidad genérica. Es una obra que es inclasificable. Parece a veces un libro de viajes, de recuerdos de la India; otras, un comentario sobre el lenguaje, sus límites y sus posibilidades. O. Paz en el momento de escribir esta obra, se encontraba en Churchill College. Quería describir el recuerdo de un peregrino en el camino de Galtá(India). Mientras iba describiendo este viaje por el recuerdo, interclaba los escritos sagrados de Rama y sus conceptos sobre el lenguaje, el cual al describir este mundo se vuelve contra sí mismo y resulta mordiéndose su propio cola. Por este proceso autoconsciente la función del

lenguaje se extiende a la escritura, incluyendo las preguntas sobre varios fenómenos que pueden existir en el acto de escribir o en la creación de la escritura. Mientras la descripción del camino de Galta conforma la escritura de la creación, la descripción del camino de la creación se vuelve un metatexto en que se incluye la crítica. En *El Mono Gramático* se presenta pues el fenómeno de simbiosis entre crítica y creación. Es decir, esta obra es un metatexto en que se da simultáneamente la escritura de un poema y una metaescritura de la crítica. Así, la obra se convierte en un metatexto: un libro que es poema (la descripción del camino de Galta) y otro que es crítica (la descripción del camino de la creación). También, desde la consideración del otro libro (una crítica) podemos asumir una hipótesis sobre una posible teorización crítica.

En la obra Octavio Paz localiza la gramática ontológica en el paraíso, en la cual no hay discrepancia entre las cosas y las palabras. Pero nuestro mundo ya se encuentra fuera del paraíso, la situación entre las cosas y las palabras es diferente a la de aquél. La primera condición del escritor autoconsciente es la aceptación de que ante nuestra verdadera condenación y la del mundo, fuera del paraíso, las cosas no pueden tener su propio nombre. Por lo tanto, la actividad poética no se reduce a nombrar cosas, sino a aceptar la separación entre el lenguaje y sus referentes; el lugar del referente (el mundo) se convierte en la concepción de la ausencia o de la nada. Pues, lo que el poeta describe no se la descripción de la realidad, sino la descripción del lenguaje mismo. O. Paz para explicar este carácter de metaescritura o de autoreferencial de la escritura, introduce el material del arte visual: el dibujo de R. Dadd. El cuadro se convierte en una visión (la presentación del dibujo mismo) de otra visión (el acto de mirar de los personajes en el dibujo).

Para profundizar 'la visión de la visión', Octavio Paz crea su propio término: 'fijeza'. Y la aclaración del mismo se desarrolla a través de las tres características ideológicas de la escritura autoreferencial: la ausencia del referente, la realidad de la escritura y la visión de la visión. 'La visión de la



visión' se manifiesta por la analogía entre el camino de Galta y el camino de la creación(escritura). De esta manera, toda la realidad (el camino de Galta) elaborada en la escritura se convierte en autoreferencia a la escritura misma. Octavio Paz muestra el acto de escribir como la ceremonia de aparición y desaparición. Esta ceremonia de aparición y desaparición como fenómeno común a caminar y a escribir, conserva el carácter importante del este instante del juego: la fijeza momentánea. El concepto de la fijeza se transfiere al nivel semántico de la ambigüedad, en que los dos significados contrarios (la movilidad y la inmovilidad) juegan la ceremonia de aparición y desaparición para revelar el mundo contradictorio de la fijeza momentánea. Entonces, la creación de la realidad de la escritura significa la concepción de la aparición, la cual nació precisamente de la ausencia del referente. Esta aparición conforma doblemente el mundo contradictorio en que convergen las cosas diferentes: el primer mundo contradictorio es la unidad y la dispersión de las cosas diferentes en la realidad de la escritura. El segundo mundo contradictorio es la aparición de la realidad de la escritura (el camino de Galta) y su inmediata desaparición por la autoconsciencia creativa (el camino de la creación).

El caminante-poeta Paz en su camino de Galta observa las proezas de Hanuman en Lanka dibujadas en el muro de la terraza. Según tales proezas Hanuman rompió las barreras y construyó un puente. Este hecho se asimila al gesto del poeta, quien reconociendo una serie de límites existenciales y epistemológicos, desea unir lo contro con lo mismo. En la obra Hanuman se presenta como 'poeta' y 'novenno autor de gramática', la cual significa la crítica del universo. El se rompen las barreras y se establece un puente que hace posible el tránsito (ir y venir). El cuerpo de Hanuman se presenta como la metáfora del fuente, que hace posible el tránsito entre montaña (pura, espacio de la definición) y mar (impuro, espacio de la indefinición). La presencia del cuerpo de Hanuman sólo permanece un instante o inmediatamente desaparece. Sin embargo, este instante (móvil) dibujado en el muro queda eternizado(inmóvil). Por lo tanto, este momento formula un instante de la fijeza momentánea, cuya

significación es la unidad entre la movilidad y inmovilidad. La fijeza momentánea primero se materializa en un puente, y luego se corporeiza en al cuerpo de Hanuman. En consecuencia, en *El Mono Gramático* el cuerpo se convierte en el sujeto que logra la unión de lo otro con lo mismo.

En la visión de Hanuman que percibe al universo como una asamblea de mundos en rotación, se planea la fijeza momentánea que funciona en la realidad de la obra y en la autoconsciencia de la escritura. La escritura como la analogía del cuerpo se convierte en el símbolo de la unidad y la convergencia. También, la escritura como la analogía del libro se convierte en lectura del mundo. La actitud autoconsciente de la escritura de verse a sí misma, como si estuviera en espejos paralelos, forma el mundo contradictorio de la fijeza momentánea en que se disipa: unidad de aparición y desaparición. La visión de la poesía que es la visión de Hanuman, es 'la de la convergencia de todos los puntos', que se logra en el instante anhelado: el momento de la fijeza momentánea. Así, el libro de Octavio Paz son dos libros: uno de poesía que describe la realidad (el camino de Galta) y otro (metatexto) que se refiere a la escritura misma. Esta manifestación de la autoconsciencia de la escritura es el aspecto central en la teoría de la metaficción.